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11.18.(수)/ 총 4매(본문 2, 붙임 2)	
자료 제공	• 육근형 해양연구본부장(051-797-4733) 이윤정 해양환경연구실장(051-797-4734)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육상과 해양의 관리 경계 허문다” …

3개 국책연구기관, 해양폐기물 통합관리 해법 모색

– KMI · KEI · KIOST, ‘이어진 바다, 함께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제1차 공동심포지엄 개최 –

– 하천폐기물 모니터링 · 유역관리 협력 · 차단시설 안전성 확보 필요성 강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이희승)과 공동으로 11월 17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이어진 바다, 함께하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제1차 KMI-KEI-KIOST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6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3개 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상에서 하천과 하구를 거쳐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정책·환경정책·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했으며, 과학적 모니터링과 해양환경 영향 평가, 유역 단위 협력 및 제도적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행사는 김홍균 KEI 원장의 개회사, 조정희 KMI 원장과 이희승 KIOST 원장의 환영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3개 기관의 주제발표와 관계부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해양폐기물과 같은 복합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기관 간 융합연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기물의 발생 주체와 유입경로 규명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충기 KEI 자연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09~2023년 5대강 권역의 해양폐기물 유입량 중 78%가 홍수기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금강·낙동강 하구의 위해도 평가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영향을 고려한 우선관리지역 선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윤정 KMI 해양환경연구실장은 육상·하천·해양으로 분절된 관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해양환경의 취약성을 고려한 관리 우선순위 설정, 발생 예방부터 유입 차단까지 연계한 다단계 관리, 시·도 중심의 유역관리 및 국가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홍상희 KIOST 생태위해성연구부장은 미세플라스틱과 중대형 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및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육상과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와 관계기관 간 연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하천폐기물의 발생원 파악과 현장 모니터링, 상·하류 지자체 간 합리적인 비용분담 기준 마련, 홍수기 차단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폐기물의 해양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발생지점과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현장 모니터링과 광역적 이동경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은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홍수기 차단시설의 치수 안전성을 고려한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과 해양, 부처별로 분절된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세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공동연구가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관련 문의는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 이윤정 실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yjlee@kmi.re.kr)

<붙임 1> KMI-KEI-KIOST 공동심포지엄 현장사진





<붙임 2> KMI-KEI-KIOST 공동심포지엄 프로그램

